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새고려신문</h1>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9년 8월 23일(금) ..(윤력 7월23일).. Пятница 23 августа 2019г. № 33(11685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2019년 8월 17일(토).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광복 74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공식인사들의 축하 인사. (관련 기사 2면에 게재) (김기윤 촬영)

단신

사할린주, 학교 1학년생 6750명

올해 학교 개학일 기념식은 각 학교에서 9월 2일 진행된다. 현재 학교들이 새 학년도를 맞아 적극적 준비 중이다. 올해 주내 162학교가 개학하고 1학년 입학생 6750명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입학생 인원은 작년보다 1000명이 더 많다. 사할린과 쿠릴 학교들에서는 총 5만8000여 명 학생들이 공부하게 된다.

히라노 류이찌 일본총영사, 송별회

임기를 마친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 총영사관 히라노 류이찌 총영사는 지난 20일(화) 송별 간담회를 가졌다. 송별회에는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비롯해 사할린주의 공식 인사들과 외교관들, 문화 분야의 많은 전문가, 사회활동가 등이 초대되어 참석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일본 간 활발한 교류에 큰 업적을 한 히라노 총영사에게 주 정부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제9회 사할린국제영화제 열려

올해, 40개국이 참여

<세계의 끝(크라이스웨타). 동쪽> 제9회 사할린국제영화제가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다. 8월 23일(금) 체호브센터에서 개막식에 앞서 18시30분에 레드카펫 행진이 펼쳐지고, 19시 15분에 개막식이 시작된다.

올해 영화제에는 40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 측의 예상을 깨고 이번 축제에 남극지역을 제외한 캐나다에서 콜롬비아까지, 아일랜드에서 한국까지, 핀란드에서 세네갈까지, 네팔에서 호주까지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영화작품들이 참가한다.

이번 경쟁 프로그램에 15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 10편이 올랐다고 전해졌다. 그중 3편은 러시아 영화이고 불가리아, 아프가니스탄, 독일, 아이슬랜드 등의 영화들이다. 이번에 한국영화는 경쟁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비경쟁프로그램에 초대되었다. 비경쟁프로그램은 주제별 13부분으로 나뉘져 있고, 관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장 중요한 것>, <영화를 보는 법>, <한밤의 상영>, <비공개의 인도스탄> 등이 마련되었다.

알렉세이 메드웨체브 사할린영화제 프로그램 총책임자는 사할린 한인 관람객들을 위해 올해 한국에서 제작되어 개봉된 <악인전>(감독 이원태)을 소개한다. 영화 '악인전'은 한국에서 흥행한 작품으로 충격적인 범죄액션 영화를 특별히 준비했다고 전했다. 영화 상영등급은 청소년 관람불가이다. 이 영화는 28일(수) 19시 30분, 29일(목) 13시에 체호브센터에서 상영된다.

올해 '영화 관람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담당 알렉세이 메드웨체브)의 일환으로 프랑스 칸 영화제 수상작인 <기생충>(감독 봉준호) 영화를 분석할 예정이다. <기생충>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최초 한국 영화다.

또한 이번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감독 장형운)가 상영된다. 이 작품은 장형운 감독이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상영은 8월 24일(토) 14시 체호브센터(상영 후 감독과의 만남), 26일(월) 오전 11시 <콤포몰레츠>영화관에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외에도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애니메이션도 상영된다.

제9회 사할린영화제 심사위원단이 알렉산드르 민다드제 감독(심사 위원장)을 비롯해 알렉산드르 로바크 배우 겸 피디, 중국의 잘린 장 감독, 카자흐스탄 프로듀서 울가 흘라세와, 최초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으로서 이고리 사마린으로 구성되었다. 이고리 사마린은 잘 알려진 지역 연구가이며 고고학자, 여행가이다.

올해도 다양한 활동교실과 워크숍이 펼쳐질 예정이며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역시 청소년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사할린 영화인들도 자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할린의 문화생활을 흔들고 충전시키는 뜨거운 영화의 날들이 기대된다.

(배순신 기자)

2019년 상반기, 사할린 주의 광부 수는 2562 명

8월의 마지막 일요일에는 러시아에서 직업 명절인 '탄부의 날'을 기념한다. 광업은 러시아 경제의 주요 분야 중 하나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사할린주 광산업체들이 7억8만5000톤의 광물을 채굴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7.6% 증가했다.

채굴 종류 중 가장 큰 비중(67%)을 차지하는 것은 갈탄이다.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갈탄의 채굴량은 473만 8000톤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4.8% 더 증가했다. 석탄 채굴량은 56% 증가되어 234만 7000톤에 달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석탄과 갈탄 광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는 2562명에 달했는데 이는 사할린주 총 근로자 인원의 1.4%이고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25%에 해당한다.

2019년 상반기 석탄업체들의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79901루블리(2018년 상반기에 비해 11% 인상)로 모든 광물자원(원유 및 천연가스 포함) 채취에 종사하는 근로자 월평균 임금보다 2.9배 낮다.

석탄 및 갈탄 채굴 관련 업체들의 고정 자산에 투자액은 36억 2370만 루블리(작년보다 3.4배 더 많다)에 달했다.

2019년 상반기에 흑자 기업체 비중은 75%에서 62.5%까지 감소되었고 적자 기업체 비율은 25%에서 37.5%까지 증가했다.

(사할린주통계국 홍보실)

주지사 대행, 사할린 한인 지도자들과 만나

지난 16일(금) 사할린주한인사회계 대표들이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과 만남을 가졌다. 사할린 한인문화센터를 찾은 주지사 대행은 세르게이 부드킨 부지사,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과 함께 우선 문화센터 앞에 위치한 사할린한인회생동포위령탑과 사할린 한인이중징용광부피해자추모비에 현화를 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었던 한인들에 대한 묵념을 했다.

이날 사할린주 지도부 대표들은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노인회 김종길 회장, 주이산가족협회 박경춘 회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림종환 회장, 코르사코브한인회 이태출(이태준)회장, 주한인협회 오진하 고문,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야 사장, <사할린>텔레라디오공사의 <우리말>방송 김춘자 국장, 한국투자보호협회 천영곤 회장, 사할린주태권도협회 김춘하 회장, 사할린주름협회 춘 알렉세이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인사회계의 대표들은 자기 단체, 기관 사업을 소개하고 사할린한인 문화, 역사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간담회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 기자)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85코페이 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PP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유즈노사할린스크, 이틀에 걸쳐 광복절 74주년 기념 한국 가수의 공연, 활동교실, 씨름 축제로 흥을 돋우다

지난 17일, 18일 이틀에 걸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광복 74주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남부사할린과 쿠릴 열도 해방 74주년 기념 <우정의 날> 축제가 펼쳐졌다. 17일 가가린 공원 <코스모스>경기장에서 계획한 행사에 굿은 날씨가 계속되어 조직위원회가 대비해 장소를 한인문화센터로 변경했다.

전통적으로 해방절 행사는 <영예>광장 성화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한인사회계 대표들이 한인문화센터 앞 사할린한인회 생위령비에 헌화를 하고 묵념으로 강제징용된 1세들과 해방자들의 넋을 추모했다.

축제 첫날은 공연과 활동교실, 한식 맛보기 등 행사로 구성되었다.

본격적 공연에 들어가기 전 공식 인사들의 축사와 감사장 전달식이 펼쳐졌다. 이날 동포들로 꽉 찬 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 사할린주유마 안드레이 하프초킨 의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등이 시민들을 축하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할린에서 한민족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 민족들과 어울려 산다는 걸 강조했다. 이날 한인사회계의 사회와 문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온 분들에게 사할린주 정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가 감사장을 수여했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은 성대한 기념식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를 함께 개최하는데 사할린주한인협회 측에 감사를 표하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 사 중 주요내용을 대독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독

립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박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이날 공연은 <에트노스>에술학교 한민족과 <민들레>무용단,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그룹과 <아리랑>무용단, 강팔용 가수의 화려한 무대가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무엇보다 이날 한국의 성악가 바리톤 조상현과 트로트 가수 현당의 공연이 이어졌다.

남예종 대학교(서울) 클래식학부 성악과 학과장이며, <로마>오페라단 단장인 조상현(42) 교수는 <카르멘> 중 한 곡을, <오솔레 미오>와 한국 가곡 <청산에 살리라>를 들려주었다. 사할린 동포들에게는 특히 <청산에



살리라'란 가사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였다. 사할린에 처음 온 조 교수는 "감동스럽고 기쁘고 사할린 동포들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동포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트로트 가수로 약 30년 활동해온 가수 현당의 인기는 이날 최고의 찬사와 인기를 얻었다. 트로트를 즐기는 사할린 한인들은 이날 선물로 현당 가수의 여러 히트곡들을 들을 수 있었다. <정 하나 준 것이>, <여자는 모르지>, <결결결>,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명동의 밤>, <구드레연가>, <쉬엄 쉬엄> - 현당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박수 갈채가 터졌다. 이번 공연 참가로 현당 가수의 사할린 팬들도 생길 정도였다. 조상현 성악가와 현당 가수는 다시 한 번 사할린으로 와 큰 공연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공연과 동시에 문화센터의 교실들에서 여러 활동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한 교실에서는 사할린국립대 최 인나와 조 카리나 한국어 교수들의 지도 아래 서예를 써보고, 다른 교실에는 아나와한인회 배영희 부회장의 가르침에 따라 김밥을 만들어보는 활동도 했다. 모든 활동교실들이 인기가 많았다. 특히 서예는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비 비롯 나드사진 시장, 광기동 사장 등 공식 인사 거의 모두가 체험해보았다.

이날 한인문화센터 내 전시된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기자의 사진, 일본 조선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생들의 그림도 볼수 있었고 한식 맛도 볼수 있었다.

항상 광복절 하루를 보내는 관객들은 다만 이날 더 길게 놀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광복절 행사는 다음날 열리는 씨름 축제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50여 명이 참가했는데 축제는 아동들의 개인별, 팀별(네벨스크, 홈스크, 유즈노

사할린스크 2팀, 솔니쉬코와 메가팔라스), 선수 개별 경기와 한국 선수들의 시범으로 이루어졌다.

팀 경기에서 1위는 홈스크팀, 2위는 <메가팔라스>팀, 3위는 네벨스크팀이 차지했다. 성인 선수들의 승부 겨루기는 가장 흥을 돋우었다. 3등은 알렉산드르 김, 2등은 무스타파울루 탈라스베, 1등은 알렉세이 춘이 수상했다. 사할린주 씨름협회 회장을 역임한 춘 알렉세이는 광복절 씨름에서 여러 번 우승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부상으로 송아지를 받았다.

대한씨름협회 이승삼 사무처장은 사할린에서 60여년간에 민족씨름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데 대해 감동하고 작년 가을에 발족한 사할린씨름협회의 활동에 대해 매우 만족해 사할린 선수들을 충주 세계무에마스터십에 초대했다고 전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 모 저 모

사할린에서 '에르미타주의 날'이 조성되다

9월 2일부터 8일까지 '에르미타주의 날'의 일환으로 견학, 강연, 도서전시회, 주제별 영화상영, 예술 전문가들과의 만남, 활동교실을 비롯한 여러 행사가 개최된다.

이때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모든 박물관 입장은 무료다. 사할린주 주민들은 일주일간 에르미타주의 명작들 관람과 샹드페테르부르크의 수석 전문가인 미하일 구리에브가 진행하는 공개 시계 복원에 방문,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따라 가는 가상 여행, 위대한 작품들과 역사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도 있다. 러시아 문화수도에서 온 전문가들은 사할린 박물관 직원들을 위해 여러 경력을 쌓기 위한 행사, 활동교실, 세미나를 진행하고 온라인 정책으로는 사할린 문화기관과 에르미타주 자원봉사자들과 가상의 만남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문화 교육기획 행사는 코르사코프, 홈스크, 오하, 포로나이스크, 토마리, 티모브스코예, 우글레고르스크, 네벨스크, 마카로브 등 다른 지역들을 참가시킬 예정이라고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이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сформировали программу Дней Эрмитажа

В рамках Дней Эрмитажа на Сахалине со 2 по 8 сентября пройдут экскурсии, лекции, книжные выставки, показы темат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встречи с экспертам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это время вход во все областные музе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удет свободный.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шедевры из Эрмитажа, посетить публичную реставрацию часов, которую проведет эксперт главного музе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Михаил Гурьев, отправиться в виртуаль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Эрмитажу, послушать об истории и величайших экспонатах на лекциях. Для работ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еев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культурной столицы России проведут семинары,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другие профи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онлайн-режиме пройдет виртуальная встреча волонтеров Эрмитажа и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а.

Мероприятия этого крупного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екта также охватят Корсаковский, Холмский, Охинский, Поронайский, Томаринский, Тымовский, Углегорский, Невельский, Макаровский и другие районы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로또 복권을 구입한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이 갑부가 되다

1년간 행운을 맞추려고 노력해온 사할린의 한 주

민이 마침내 행운의 당첨자가 되었다. 알렉세이 포돌란코는 5백만 루블리 이상의 복권 당첨금을 받는 행운을 얻었다. 현재 그는 이 금액을 어디에 쓸지를 생각해냈다. 12/24의 국가 복권의 당첨자로서 복권 12만5610 발행권 중 1등으로 당첨되어 5027910 루블리를 받게 되었다. 그는 1년간 행운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터넷으로 복권을 구매했다. 알렉세이 포돌란코는 자동적 숫자의 선택에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머리를 쓸 필요도, 혼자서 숫자를 조합하려고 생각을 짜낼 필요도 없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행운의 복권을 샀다." 고 그는 덧붙혔다.

그는 자주 아내와 자녀들에게 선물로 한턱을 내고 있다. 당첨금 일부는 가족의 꿈을 성취할 해외 여행하는 데 쓰고 이외에도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이라고 한다.

Южносахалинец купил лотерейный билет и стал миллионером

Житель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ы в течение года пытался договориться с фортуной, и наконец это ему удалось. Алексей Подольно выиграл в лотерею более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Мужчина уже придумал, на что потратит деньги.

Островитянин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лотереи 12/24.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толото», Алексею повезло в 125 610 тираже.

(7면에 계속)

사할린강제동원 80주년 기념 춘계 시낭송회 개최

고향(故郷) 부른다

쓴도라 바람 속에 몸을 맡기고
아까운 내 청춘(靑春)이 시들어가네
밤바람 불탄거리 흘러 흐르는
신문지(新聞紙) 마호라까 애 보라색(色) 연기(煙氣)

오호씩해(海) 바다 우에 보는 저달은
내 고향(故郷) 우리 부모(父母) 눈물이던가
가고져 가고져도 못 가는 고향(故郷)
오늘도 스라시테 아! 밤비가 우네

이 마음 바다 물에 실어보내니
고향(故郷)에 계신님아 건져 보소서
사나이 가슴 문(門)을 꼭꼭 닫고서
뜨거운 눈물 속에 아! 고향(故郷) 부른다.

지난 8월 19일(월) 오후 6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디아스포라문화원(원장 박승의) 공동 주관으로 춘계 시낭송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장을 사할린주 한인협회, 유스노사할린스 크시한인회, 사할린주여성회, <아리랑>무용단, 아리랑학회(한국) 등 관계자, 사할린한인문화계 대표, 일반 시민과 사할린역방문한 영주귀국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춘계(본명 류시욱) 선생의 장남 류종하(한국) 씨와 딸 류선희(블라디보스토크)씨가 이날 자리에 함께해 더욱더 감동적이었다.

행사 진행은 아리랑학회(한국) 기미양 이사가 맡았다.

춘계 류시욱(1920~1962)은 경북 의성군 출신으로 류성룡 선생 집안의 13대 장손이다. 젊은 시절 문예창작과 사상활동을 벌이다 옥고를 치른 후 강제징병을 피해 사할린 나이부치(비코브) 탄광에 끌려가 귀국하지 못했다. 조선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직접 '조선어 문법'과 '조선문학'을 가르치고 교재를 만들기도, 수필 등 여러 작품을 썼다.

이번 시낭송회 대상 작품은 류시욱의 일기문 '산중반월기/山中半月記'에 실린 <공민증을 타던날>, <달밤>, <고향이 부른다>, <탄부의 이야기> 등과 <조선노동자>(현 새고려신문) 신문에 수록된 시를 포함한 10편의 시들이다. 이날 시를 약 20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낭독했는데 특히 박영자 씨와 최정순 씨가 훌륭하게 읊어 시 내용이 관객들의 마음에 와닿았다.

시낭송에 앞서 디아스포라문화원 박승의 원장(전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교수, 현재 과주 영주귀국)은 춘계 선생에 대한 특강으로 <산중반월기>를 소개하였다. 몇 년 전 춘계 선생의 일기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책을 출간한 박승의 선생은 춘계의 시도 번역했다. 일부 시는 이날 러시아어로도 낭송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러시아 작가동맹원 양 세르게이 작가는 축사를 하면서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와 문학을 널리 알리고 춘계 선생을 기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한 춘계 선생의 장남 류종하 님은 "저는 이곳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과 같은 사할린 강제징용 2세로 한국 내 유족입니다. 제가 세 살도 되기 전 선친이 이곳으로 끌려오신 후 저는 선친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저의 선친께서는 생전에 오매불망 조국으로 돌

아가고 삼은 심정과 동포들의 사할린에서 생활상을 유길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해방 후 후진교육을 위해 곧바로 일본 학교를 인수한 후 학생 교습용 한글교재 <조선문전>을 저술 하셨는데 이를 공로를 인정한 한국 정부가 대통령 표창을 추서해주었습니다. <산중반월기>는 한국 정부에서 사할린 한인역사기록물로 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라고 류 선생이 사할린 동포들에게 알렸다.

답사를 한 디아스포라문화원 김영기 사무총장은 "5월 1일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디아스포라문화원이 개최한 제 1회 춘계 시낭송회를 통해 춘계(류시욱) 선생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 첫째 사할린 작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정립하고자 합니다. 둘째 작가의 고향 경상북도 의성에 춘계 문학비를 세우고자 합니다. 셋째, 국문학사에서 사할린 한인문학을 독립적으로 구체화 하려고 합니다. 이상 3가지를 실천하는 의지를 보고드리기 위해 사할린에 왔습니다."라고 발표했다.

경기도 양주로 영주귀국한 김 세르게이 씨가 춘계의 <고향>이란 시를 작곡했다. 이날 이 악보는 류종하 씨에게 전달되었다.

제1회 디아스포라문화상 시상식도 있었다. 본상은 춘계 일기를 번역한 박승의 원장, 공로상은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에게 수여했다.

시낭송회 마지막 순서로 다시 무대에 오른 류종하 님은 <산중반월기>마지막 부분에 아들에 대한 글을 낭독하여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평범한 보통 사이라면 모르거니와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람이 돌아서면 원수가 되는 법이니 예비로써 예비노릇을 못하는 나는 예비가 아닌 것이요. 나아가 예비가 아닌 나는 남보다도 못한, 다시 말하자면 종하의 어린 요람의 소년시대를 망쳐놓은 원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종하는 나를 <아버지!>라고 편지에다 불렀고 나 역시 깊은 회오 속에서 무척도 그림고 한없이도 보고져 한단다. 그러나 우리들은 맞날 수가 없구나! 지금 종하를 만났잖아 내가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종하를 보고서 <사랑하는 아들아!>하고 부를 자격이 없는 나는 그애가 <아버지!>하고 부르드라도 선듯 대답할 수 없는 사정에 있는 것이다... 천룡이 천룡을 찾고 피가 피를 찾는 이 부자 간의 피의 유희를 어느 자가 감히 끊으려고 시도하는가? 끊지 못할 피를 끊으려는 자, 동족상쟁이란 용서 못할 이 연극 지도하는 자, 반드시 인민들에게서 정의의 심판을 받고 말것이며, 피는 피끼리 어울려 지고야 말것이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빛의 놀이>제 1회 사할린 미래의 영화제 비경쟁프로그램 한국 영화 '꼭두 이야기'와 '미스터 아이돌' 초청

8월 16일부터 시작된 <빛의 놀이> 제 1회 사할린 미래의 영화제가 개막하면서 영화관 <옥차브리>와 <콤소몰레츠>에서는 청소년들이 제작한 단편 영화들 79편과 비경쟁프로그램으로 초청된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비경쟁프로그램의 <더 가까이>라는 부문에서 상영된 한국 영화 <꼭두 이야기>가 16일(금)과 18일(일) <콤소몰레츠>영화관에서 상영되었고, 17일(토)에는 <하위문화>부문에서 영화 <미스터 아이돌>이 같은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다.

개막일부터 사할린에는 태풍이 불어닥친 가운데 거센 바람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를 향한 청소년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영화 <꼭두 이야기>는 2018년에 개봉된 김태용 감독의 작품이다. '꼭두'라는 용어는 '꼭두새벽(아주 이른 새벽)', '꼭두각시(남의 조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꼭두배기(산봉우리)' 용어에서 보듯이 제일 이른 시간이나, 제일 윗부분, 이쪽과 저쪽 또는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선상을 의미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 장례식에서 볼 수 있는 상여에는 꼭두들이 장식되어 있다. 꼭두는 사람이나 동물,식물의 형상을 나무로 조각한 인형과 비슷하다. 상여에 붙은 꼭두들의 종류는 죽은 자가 저승에 잘 가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 꼭두, 무기를 들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무사 꼭두, 가는 길에 불편이 없도록 시중을 드는 시중 꼭두,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어 즐겁게 하는 광대 꼭두가 있다. 또한 현실과 꿈을 오고 가며 괴로움과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꼭두는 저승으로 가는 영혼의 수호천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영화 '꼭두이야기'는 이런 꼭두를 주제로 할머니와 손주를 연결시켜 이야기를 풀어어나간다. <더 가까이>라는 부문에 맞게 세대 간 소통이 어려운 병든 할머니와 손주와의 관계, 두 세대 간의 간극을 넓히고 좁히는 매개인 할머니의 '꽃신'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두 손주 수민과 동민은 시장에서 꼭 갖고 싶었던 강아지를 얻기 위해 방법을 찾는다. 돈이 없는 아이들은 집안의 안 쓰는 물건들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은다.

"할머니 곧 죽는데." 라며 손주들은 병져 누운 할머니의 고운 꽃신을 챙긴다.

그리고 원하던 강아지를 얻는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수민과 동민의 엄마는 할머니 장례를 앞두고 꽃신을 찾는다. 손주들을 믿지 않았음을 알아채고 다시 꽃신을 찾으러 고물상으로 가서 애타게 꽃신을 찾다가 아이들은 환상인지, 꿈인지 모를 무대로 간다. 그리고 저승으로 죽은 사람을 인도하는 꼭두들을 만난다. 영화는 현실을 영상으로, 환상을 국악 공연 무대로 연결해 현실과 환상을 연결시켜 영상화했다. 환상 속 무대에서는 저승길의 선녀들과 화려한 옷을 입은 꼭두들의 인도를 받는다. 손주들은 저승의 삼도천을 건너기 전까지 애타게 할머니의 꽃신을 찾아온다. 이 또한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호해지는 부분이다. 그 선상에 꼭두가 있다. 국악 공연 무대와 영상이 접목되어 어우러진 영화 속의 화려한 국악 공연 무대는 꼭두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한국의 전통 장례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는 교육적인 면도 갖고 있다.

<하위문화>부문의 초청작 '미스터 아이돌' 상영에는 K-pop에 대한 관심과 함께 많은 청소년들이 관람석을 차지했다. 영화를 제작한 라희찬 감독이 사할린을 찾아 영화 상영 후 자신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도 답을 했다.

하위문화는 (subculture / субкультура)는 정통적, 전통적인 문화의 수준에 비해 사회의 일부 단체나 그룹 속에 그들만의 일정한 문화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대중문화, 도시문화, 청소년 문화, K-pop문화 등등. 한국의 k-pop 아이돌과 노래를 영화의 주제로 삼은 '미스터 아이돌(Mr idol)'은 어린 아이돌 그룹이 청소년 세계에 음악의 영웅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해체되고 다시 스타의 자리로 올라가는 미스터 아이돌의 이야기를 그렸다. 화려한 배우들과 아이돌 가수가 배역을 맡았다. 스토리 전개는 집중력을 높여 순발력과 기지, 재치가 넘치는 대사, 음악, 공연으로 연결되면서 마지막까지 지루할 틈도 없었다. 한국의 가요계 '아이돌'들이 겪는 가족들의 냉대, 연습생들의 부자유, 딜렘마를 잘 그려냈다. 영화 속 미스터 아이돌 팀을 구성한 프로듀서 오구주는 노래방 보컬의 현이, 클럽에서 활동하는 지오, 자신을 버린 엄마를 찾으려고 랩퍼로서 노래를 부르는 캐나다 입양아 리키, 카페에서 밴드 그룹으로 노래하는 유진을 찾아 다니며 아이돌 그룹 재구성을 제안한다. 언제나 냉엄한 표정의 오구주는 오디션에서 가망 있는 연습생에게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너의 노래는 서툴고, 거칠고 밋밋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라고.

이렇게 노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미스터 아이돌 그룹은 혹독한 훈련에 돌입한다. 노래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다니며 그룹을 알리기 시작한다. 이들이 부른 노래는 청년으로서 접했던 꿈을 다시 펼쳐려는 열망을 담은 <섬머 드림summer dream(여름날의 꿈)>이다. 노래 가사가 이 영화의 주제를 담고 있다.

'저 빛나는 별처럼, I'm gonna shine oneday. 승리의 그날 위해 오늘도 꿈을 향해 나는 포기하지 않아. 절대 멈추지 않아. 수천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warrior.

Summer dream 영원히 달콤한 그 멜로디, feel your dream 너와 나 이렇게 함께 가자. 때론 아파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영원히 함께 할 summer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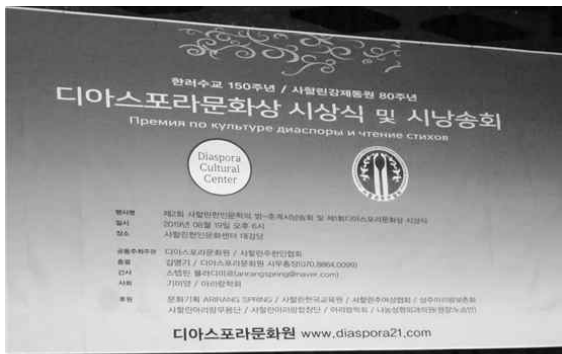
Let's take it to the top. 두 눈을 감고 상상해봐 끝없이 펼쳐진 바다처럼 꿈을 펼쳐봐. It's gonna be okey. 울지 말고 힘내. 우리에게겐 기다리고 있어. 밝은 미래.'

영문과 한글을 섞은 노래가 뒤섞이며 한국적이면서도 글로벌한 느낌을 갖게한다.

(8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тихи Лю Си Ука, насильно завезенного на Сахалин и погибшего в шахте, впервые прозвучали на острове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прозвуча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исателя и поэта Лю Си Ука, творившего под псевдонимом Чхунге. Со сцены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их прочитали жители острова, а также Лю Дён Ха — сын Лю Си Ука, прилетевший из Южной Кореи.

Долгое время имя этого автора на Сахалине не было известно вообще никому. А потом, в 2005 год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корейск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ая делегация по выяснению обстоятельств действий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во время оккупации Сахалина обнаружила многие факты, касающиеся событий тех лет, и издала нескольких книг,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дневник Лю Си Ука "Полмесяца на полевом стане". Стали обнаруживаться и другие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 открылись подробности истории его жизни.

Лю Си Ук родился в 1920 году в деревне Косиль провинции Кенсан-Пукто. Учился, работал, писал. В Сеуле был принят в Союз писателей и получил творческое имя, как это принято в Корее. А потом мирная жизнь закончилась. З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корейском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м движении японские власти посадили Лю Си Ука в тюрьму Содэму, где он провел полтора года. Выпустили его тольк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ручить повестку на принудительную трудовую мобилизацию на Сахалин. Оставив жену с маленьким сыном и пожилых родителей, Лю Си Ук отправился на остров.

В Быкове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исате-

лю пришлось забыть о творчестве и узнать, что такое беспросветная тяжесть работы на шахте, в забое. Каждый день он мечтал о возвращении на родину.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в 1945 году Лю Си Ук хотел уехать в Корею, но не получилось. Он так и остался на Сахалине, снова женился, родилась дочь. Из-за проблем с легкими он не мог больше работать в шахте, трудился строителем, поваром, был учителем и даже в течение короткого времени директором школы. С этой должности его прогнали за отказ становиться полноценным гражданином страны и вступать в комсомол.

Лю Си Ук написал несколько учебников, в том числе грамматику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Его работы увидели свет только после 1991 года в Корее. А с 1952 года и до своей смерти в 1962 году Лю Си Ук был рабкором газеты "Корейский рабочий".

В 1957 году в поисках работы писатель оказался в красногорском леспрохозе, где участвовал в сенозаготовке. Именно тогда, за 15 дней (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сентября) он и написал дневник "Полмесяца на полевом стане". В этих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их заметках — вся боль воспоминаний о потерянной родине и оставленной семье, брошенном сыне и жизни, которая пошла не так, как мечталось.

В 1962 году в результате обрушения породы Лю Си Ук погиб в шахте, где выполнял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Наталья Голубкова
ИА САХКОМ**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тметили 74-ю годовщину освобожд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отметили 17 август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 имен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жителей поздрав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люди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 сегодня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ая традиция — отмечать праздник всем вместе. Без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и согласия в обществе регион не сможет развиватьс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носят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экономику, культуру, общественную жизн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отмети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 поздравлениям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также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ндрей Хапочкин и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деловых партнер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чти 46 процентов от всего объем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ет Страна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Корейские инвесторы вкладывают средства в нефтегазовую, туристическую и другие отрасли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Кстати, сегодня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живают около 45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Корейск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придать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е, изучению родного языка. Ребята с восточного отделения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прославляют Сахалин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ах и фестивалях. В области уже 15 лет работает первое и единственное в России корейское телевидение. На протяжении 70 лет издается газет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Сэ корё синмун».

— Это, наверное, самый важный праздник для нашего народа, где бы мы ни жили. Волей судьбы получилось так, что наши родители оста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И теперь остров стал для нас не просто домом, а род-

ным домом. Здесь мы строим семьи, карьеру и — самое главное —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Спасибо, что в этот день вы все с нами! — сказала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На празднике участников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градил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сохран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Подарком для сотен собравшихся были выступ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евцов — баритона Чо Сан Хена и эстрадного певца Хен Дана, а также творческие номера от ребят из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при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есс-центр ПСО)



Фильм "Кокту: история ангелов-хранителей" показали на "Игре света"

На фестивале "Игра света" смотрят фильмы, созданные детьми для своих ровесников и родителей, а также предлагают и традиционные попытки взрослых понять "племя младое, незнакомое".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Ким Тхе Ёна уже посмотрели в Калининграде и Берлине. На фестивале "Игра света" он прошел по программе "Стать ближе", и хотя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полн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а и связи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крепки, он тоже способен стать открытием.

Едва ли все корейцы сегодня в курсе, что кокту — это грубоватые, раскрашенные деревянные фигурки, которыми украшают погребальные носилки на похоронах в Корее. Кокту призваны помогать и защищать умершего, служа ангелами-хранителями и поводырями на том свете. В этом сказывается конфуцианская природа верований корейцев,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смерть означает переход к жизни в новом качестве. А потому проводы умершего должны были быть обставлены с меньшей уважительностью и щепетильностью, как если бы воздавали должное живому человеку. Кокту-маски, провожаю-

щие умершего на тот свет, исполняют различные функции — защищают, развлекают, помогают, ведут. Значимость кокту, этих ритуальных предметов в церемониале прощания с человеком, породила отдельный жанр пышных костюмирован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й, которые и сегодня идут на сцене в Корее.

Правда, если довериться корявому анонсу фильма, то он слегка вводит в заблуждение — про то, как "дети в поисках узорчатой обуви бабушки попали в ад". В переводе с корейского на русский по ходу действия выясняется, что режиссер Ким Тхе Ён сделал объект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анализа тему "дети и смерть", подперев не самый развеселый, но житейский важный вопрос специфическ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колоритом. И его волей дети из реальной жизни влетают в театральную фантазию с участием актеров, разыгрывающих представление кокту. Режиссер "сложил" фильм нарезкой перемежающихся кадров из жизни и спектакля, так что зрителям дается шанс побывать 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деревне, в больнице, на сельской

похоронной процессии, за кулис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еатра и добраться до реки, за которой — загробный мир.

Надо быть сверхидеальным ребенком, чтобы твое детство обошлось без проказ, стояния в углу, стыренных тайком денег, конфет или маминых колечек. Потому что всегда найдется очень нужная вещь, которую надо, во что бы то ни стало, заиметь, а иначе жизни просто не будет. Для решительной девочки и ее младшего брата с ясными глазами и нежными щеками, Ду Мин и Су Мин, таким магнитом стал белоснежный мишкет-щенок, случайно увиденный в коробке у старьевщика. Предприимчивая парочка, не мудрствуя лукаво, обменивает вожака щенка на кучу, вроде бы, домашнего хлама, включая бабушкины туфли в цветочек. А любимая бабушка вдруг заболела и начала умирать. Сопоставив и тихо ужаснувшись таким последствиям, обаятельные воришки бросаются на поиски заветной узорчатой обуви...

Жаль, что на показе "Кокту" в кинотеатре "Комсомольце" народу было немного, и в процессе сеанса бы-

ли зрительские потери, не каждый смог снести по-восточному медитативную интонацию фильма. В процессе просмотра зритель не только обогащается эмоционально, но и оценит познавательную сторону дела, открывая "другую сторону Луны" — Корею не мегаполисов, но патриархальную, с похвальной приверженностью сложносочиненным традициям, а значит, и предкам.

А фильм Ким Тхе Ёна простой и добрый, акварельно прозрачной ясности — про обычную семью, где все любят друг друга, заботятся, искренне печальтс смерти бабушки. Много это или мало, чтобы считаться достойным фильмом для семейного просмотра? Без домашнего насилия, конфликтов поколений, с вменяемой мамой и дружбой сестры и брата. И чтобы двигателем сюжета стало воспитание маленького человека — не в жестких столкновениях до крови с реальностью или, наоборот, в сахарном сиропе оберега деточки от страшного и неприятного. А естественно и спокойно, когда дети принимают неизбежную данность сдержанно, со взрослой мудростью. И продолжают писать письма бабушке, как живой.

**Марина Ильина
ИА Сахком**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Пекин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глав МИД РК и Японии

Главы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ведомств РК и Японии — Кан Гён Хва и Таро Коно — встретились 21 август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в Пекине по окончании трёхсторонней встречи с участием их китайского коллеги Ван И. Как полагают, Кан Гён Хва вновь призвала официальный Токио отказаться от введённых недавно ограничений на экспорт. Сеул призывает к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у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считая японские меры эк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противоречащими принципам свободной торговли. Министры не достигли никаких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Встреча министров состоялась в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Сеул решает вопрос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а действ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защите конф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при обмене во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В Сеуле состоялся митинг против политики Синдзо Абэ

15 августа на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 Сеуле состоялся большой митинг. Различные граждан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рудовых и религиозных кругов, собрались на площади, чтобы осудить политику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э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давлению на РК и искаж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их фактов, а также провести митинг со свечами на тему мир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100 тыс. человек. На многих участниках были футболки с надписью «No Japan» или с призывами не ездить в Японию и не покупать японские товары.

Пхеньян не собирается 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с Сеулом даже после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учений

Пхеньян не намерен возвращаться к переговорам с Сеулом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овмест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мирному воссоединению Кореи.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надеются на то, что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диалог возобновится 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но эти надежды являются «бессмысленными». «У нас нет намерений садиться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с Сеулом», —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фициальный Пхеньян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речь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по случаю 74-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отреагировала на озвученные Мун Чжэ Ином пункты, касающиеся воссоединения и мирной экономики. В Пхеньяне считают, что эти высказывания не имеют ничего общего с темой знаменательной даты. В этой связи затрагивание темы диалога и мирного режима является неприемлемым в ситуации, когда РК и США ведут военные учения.

Участники автопробега «Зов предков-2019» прибыли в РК

15 августа участники автопробега «Зов предков-2019»,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корейцами России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честь 100-летия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и с целью поддержки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ибыли в РК. Сообщается, что 40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прибыли в порт Тонхэ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Автопробег стартовал 9 июля в Москве, откуда участники выехали на десять автомобилей. Они проехали через Россию, Казахстан, Узбекистан, Монголию и Китай. В пути они посещали знаковые места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в том числе, памятник генералу Хом Бом До в Кызыл-Орде, музей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Ан Чжун Гына в Харбине и другие. В РК участники автопробег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по случаю 74-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также посетили Национальное кладбище в Сеуле. До 25 августа они намерены посетить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ые места в РК, а затем отправиться в Москву, завершив длительную поездку, растянувшуюся на 25 тыс. км. Председатель оргкомитета проекта Эрнест Ким заявил, что очень рад находиться в РК в этот важный день.

Фильм «Битва при Фэнудуне»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3 млн человек

Фильм режиссёра Вон Син Ёна «Битва при Фэнудуне» посмотрели более 3 млн человек. 15 августа в Корейском комитете развития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сообщили, что на демонстрации этого фильма продано 3 млн 2 тыс. 93 билета. Такого показателя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за 9 дней после премьеры,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7 августа. «Битва при Фэнудуне» повествует о событиях 1920 года, когда корейские борц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одержали первую победу над японскими милитаристами. Действия фильма происходят в местечке под названием Фэнудун, располагающемся в кита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Гирин. Фильм был хорошо встречен на фоне нынешне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РК и Японии и 74-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RKI)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открытый фестиваль по ссирым

Открытый фестиваль п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состоя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посвящённый 74-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Курил 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оходил два дня. В субботу участников фестиваля ждал концерт, а в воскресенье им подарили бурю эмоций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и праздника.

— Ссирым зародился в Корее много лет назад. Изначально его практиковали сельские жители, они боролись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ов, победителю доставался приз — живой телёнок. На Сахалине после 1945 года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продолжила эти традиции,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ла состязания в узком кругу. Искусство передавалось из поколения в поколени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развивать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 рассказа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директор региональной спортив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Дмитрий Па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 подписан пятисторонний меморандум 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этого вида спорт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глашение заключено между федерацие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Ичхон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ла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стровной федерацие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и ООО «Грин Солюшн Мегас Палас Отель». Перв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шли в апреле этого года на базе УТЦ «Восток», далее череда выступлений продолжилась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бласти.

В это воскресенье участниками поединков стали около 50 человек. На площадк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ошлись команды из Холмска, Невель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ткрывали фестиваль самые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далее эстафету переняли ребята постарше, они сражались уже командами.

Правила борьбы очень просты,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повалить противника на землю. Удары, толчки и удушающие приёмы запрещены. Бой длится до двух побед. Соперникам даётся два раунда по одной минуте каждый. Именно за это время они должны выявить сильнейшего. Если счёт равный, то судьи назначают третий финальный раунд.

— Интерес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Победить здесь не так-то просто, нужно иметь сильную спину и ноги, — отметил участник Сергей Михайлов. — Вообще, занимаюсь самбо, недавно предложили проверить свои силы в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я согласился, в итоге понравилось. Самбо попроще, чем ссирым, там можно упасть на колено, а в ссирым это уже считается



поражением.

По итогу зрелищных поединков победителями в командном зачёте стали холмчане,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и южносахалинцы из «Мега палас», а третье — невеличане.

После этого зрители смогли насладиться показательным выступлением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Апогеем ста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среди взрослых спортсменов в абсолютной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бескомпромиссных схваток места распределились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 бронзовым призёром стал Александр Ким, серебро взял Мустафаулу Таласбе, а медаль высшей пробы завоевал Алексей Чун.

Алексей практикует корейск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борьбу около 25 лет и является президентом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сирым.

— Все эти годы занимался на любительском уровне, сейчас развиваем этот стиль н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К нам приходят молодые крепкие ребята, которые достойно выступают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Это говорит о хороших результатах нашей работы, — отметил Алексей Чун. — Конечно, в силу своего возраста мне уже тяжело бороться с более молодыми спортсменами, поэтому приходится руководствоваться опытом — использовать определённую технику и приёмы.

По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и победителю достались не только статуэтка и медаль, но и настоящий живой телёнок.

— В нашей борьбе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уважение к сопернику. Ссирым развивает не только физическую силу, но и дух. Мы очень ценим желание и тенденцию развития этого движ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и готовы продолжать совмест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подчеркнул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ассоциации борьбы ссирым в Корее Ли Сунг Сам.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с 14 лет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уроки культуры и т.д.).

Начало занятий с 9 сентября

Заявления принимаются

с 19 августа 2019 г.

по адресу пр. Мира, 83 а, офис 3.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Режим работы : 9:00 – 18:00

Обед : 12:30 – 14:00

*При себе иметь фото 3*4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начала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трудоустроили 560 инвалидов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спец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стимулирующих работодателей к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численность которых превышает 35 человек, у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квоты на создание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инвалидов.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е должны испытывать проблемы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Чтобы повысить мотивацию работодателя нанимать инвалидов, в регионе теперь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субсидия, которая возмещает расходы на зарплату.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человека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но и его наставника,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Бабич.

Такую субсидию работодатели получают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месяцев с момент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нвалида. На е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 этом году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равили более 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Инвалиды трудоустраиваются верстальщиками и корректорами, дворниками и разнорабочими.

Кроме этого, с янва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бластная служба занятост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валидам новую меру соцподдержки — сопровождение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занятости. Это изменило жизни многих островитян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астасия Королева не могла найти работу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но в этом году ситуация на рынке труда изменилась. Уже три месяца девушка работает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ейчас в Центре занятости работают 2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окна, в которые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инвалиды. Если нужно — дают машину, на которой тебя привезут в учреждение и отправят домой. Меня это очень удивило. Дл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буквально стерли барьеры, — делиться своим опытом Анастасия Королева.

Ежегодно в островные центры занятости обращаются около полутора тысяч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из-за жизнен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не могут найти работу. Реализуемые в регионе меры дают им возможность эффективно применить свои способности и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полноценными членами общества. С начала года с помощью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нашли дело по душе 56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егод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ет один из самых внушительных пакетов мер соцподдержки — в него входят около 200 льгот. По инициативе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этот перечень стал еще больше. На соц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островитян в этом году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едусмотрели около 8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реди новых мер — компенсации расходов за покупку дров и угля, за капремонт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за приобрет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приема цифрового сигнала.

Расширен круг получателей бесплатных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ых путевок. Теперь льготой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ветеран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их вдовы, бывшие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узники фашизма, неработающие пенсионеры с северным стажем от 40 лет, почетные доноры.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 увеличить с 3 до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на лечение тяжелоболь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роме того, с начала года инвалидам I и II групп стали предоставлять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 до 3,4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етеранам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чали ежемесячно выплачивать 1,5 тысячи рублей. А с 1 июня пенсионеры, которые проработал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т 35 до 40 лет,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на ежеквартальную выплату — 3 тысячи рублей.

Более 1600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получили наборы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ых

Их предоставляют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независимо от материа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и статуса семьи. Меру поддержки ввели с 1 апрел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месте с подарком при выписке из роддома мамам также вручают памятный диплом.

Набор помогает родителям сэкономить на покупке самого необходимого новорожденному в первые дни жизни. Подарочный комплект вручают маме в день выписки из роддома. Если по каким-то причинам этого не произошло, родител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набор в течение двух месяцев в отделении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арок полагается на каждого малыша, даже если это двойняшки или тройня. В комплекте — 19 предметов для ухода за новорожденным. Это подгузники, средства для купания, термометр, детский крем и разовые пеленки. Южносахалинке Миле Захаровой подарок вручили при выписке из перинатального центра.

— У нас родился второй сыночек — это такое счастье! Еще и подарок получили. Неожиданно и очень приятно. Тем более, что в этом наборе — все самое нужное. Нам это пригодится. Хорошее подспорье для семьи, — отметила мама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Кроме подарочного набора при рождении детей сахалинские семьи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целым комплексом региональных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Так,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енца для молодых семей предусмотрена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 54 444 рубля, мамы в возрасте 19-25 лет также получают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Семьям предоставляют ежемесячные выплаты на питание детей до 3 лет в размере более 2 тысяч рублей.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при рождении второго ребенка — более двухсот тысяч рублей. А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компенсируют расходы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коляски и товаров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Родителям с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материальная помощь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предметов домашнего обихода для ребенка. С 1 июля семьи с детьми в возрасте от 1,5 до 3 лет, которым не предоставлено место в детском саду, могут оформить ежемесячную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 более 14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Сахалине к участкам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подводят дороги, электричество и газ

Работы развернулись на землях, где островитяне, имеющие троих и более детей, скоро смогут возвести дома. Это снизит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сходы семе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подъездных путей развернулось в пригоро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дрядчик завершает работы на двух участках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600 метров на юге Березняков. А на севере появится дорога длиной более 1 километра.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ведут выемку, отсыпку и уплотнение грунта, обустроят отводные каналы.

Работы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18 участков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в Березняках завершат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А в перспективе инженерной 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обеспечат еще более 100 таких площадок на территори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Так, аналогичные работы планируют провести в соседнем Старорусском.

В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 подвести к участкам электричество и газ.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же ускорили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ы газификации.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увеличен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роки сдачи объектов сдвинуты на более ранние. В частности,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газ появится в Новой Деревне — его подведут к участкам,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 многодетным семьям. Также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скоро появится в 23 микрорайоне и на улице Лесно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помним,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6 тысяч семей, в составе которых трое и более детей. Росту рождаемости на островах способствует объемный пакет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пример, сегодня все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в области получают ежемесячную выплату на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 2551 рубль.

Увидеть остров с высоты птичьего полета смогут посет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павильона на «Улиц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Экспозиц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на острове Русском, с 3 по 8 сентября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под девизо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оль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 большие достижения!». В каждой зоне павильона гостям расскажут об уникальност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Напомним, по итогам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2018 года павильо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виде двух набегающих друг на друга гигантских волн,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Сейчас он законсервирован на набережной кампус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Для экономики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реши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бедный павильон еще раз.

Выставочный комплекс ждет несколько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Одну из волн стилизуют под парусник, а во вторую — будет «нырять» серый кит. Выбор этого морского жителя неслучаен: уникальная популяция крупны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обитает в Охотском море на шельфе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го Сахалина. Этот вид занесен в Красную книгу России и Красный список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юза охраны природы. Но за последние 10 лет численность популяции краснокнижных китов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высокими темпами.

Внутри сахалинского павильона расположится несколько зон. «Экономика и инвестиции» — познакомит со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проектами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езидентами TOP, институтами развития област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проектами, историями успеха в освоен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ектаров».

Отдельная зона будет посвящена нефтегазовому комплексу. В 2019 году в этой сфере отмечается несколько юбилейных дат: 25 лет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Энерджи», 20 лет с начала добычи первой нефти и газа на морских платформах, 10 лет первому в России заводу СПГ.

Здесь посетители познакомятся с достижениями компаний-операторов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 — 1, 2, 3», перспективами их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Кстати, на озере, рядом с павильоном, разместится модель судна-газовоза в уменьшенном размере.

В отдельном шатре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зона «Туризм и отдых». Она расскажет о развитии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егиона. Посетителям предста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етать» на тренажере-парплане и при помощи очков дополненной реальности насладиться островными пейзажами с высоты птичьего полета, а также «прокатиться» на горных лыжах и ощутить остроту спуска со склона. Также в павильоне можно буде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лучить сувениры на память, а также флипбук с запечатленными моментами пребывания гостя выставки в павильо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править свою фотографию-открытку на фоне экспозиции в любую точку на карте мира.

Кроме того, на площадке павильона с 3 по 5 сентября пройдут творческие встречи с актером, кинорежиссером, продюсером, заслуженным артистом РФ, президентом фестиваля телевизионных фильмов «Утро Родины» Сергеем Жигуновым. А на сцене с программой «Любимый Сахалин» выступят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региона.

В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м фестивале в зоне «Рыбный рынок» сахалинские повара представят для дегустации стейк из кеты с кокосово-икорным соусом.

Три новейших скоростных поезда доставили на Сахалин

В первый рейс новый для Сахалина вид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отправится 30 августа — в день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открытия перешит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Ранее решение о замене старых поездов принял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мая современная модификация рельсовых автобусов — РА-3 — будет курсировать на пригород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орсак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Томари и Холмск — Томари. Вместе с широкой колеей сахалинцы получат и самый современный подвижной состав, смогут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на пригородных маршрутах быстро и с комфортом. К тому же, в новых составах предусмотр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подъемники и места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Три новых рельсовых автобуса заменят старые дизель-поезда, которые ходили еще по японской узкоколейке. Новые составы изготовили в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и отправили на Сахалин. В пути вагоны находились почти три недели.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внешний вид транспорта, их защитили специальной пленкой.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поезда будут обкатывать. Прежде, чем выйти на линию, они должны преодолеть тысячу километров. За это время машинисты привыкнут к управлению новым для них видом техники. А уже с 30 августа составы начнут работать на пригородных маршрутах.

Рельсовые автобусы РА-3 быстрее аналогичных видов транспорта — развивают скорость до 120 километров в час.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двигателям Mercedes-Benz. Поезда имеют запас хода — 800 километров. Составы двухсекционные. Каждый способен перевезти 231 пассажира.

—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людей отвечают системы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пожарная и охранная сигнализации. А комфорт обеспечивают кондиционер, светодиодное освещение, обеззараживатель воздуха. В каждом вагоне две санитарные комнаты, а не одна, как в старых поездах, — поясн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дуард Ри.

Проект по обновлению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техник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еализуют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торый входит в группу ВЭБ.РФ — крупнейш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 Этот проект не только решает региональные задачи по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пассажирских перевозок, но и выводит на рынок рельсовый автобус РА-3 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Это новейшая разработка крупнейшего в России производителя техники «Трансмашхолдинг»,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ВЭБ.РФ Артем Довлатов.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новых поездов направили почти 8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Транспорт передали в лизинг АО «Пассажирская компания Сахалин» — главному перевозчику пассажиров на дальнем и пригородном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м сообщении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упить еще четыре современных рельсовых автобуса.

Напомним, с 1 июня перешивка сахалинск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колеи на общероссийский стандарт — 1520 мм — вышла на завершающую стадию.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 сентября 2019 г. – ДОСРОЧНЫЕ ВЫБОРЫ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주민의 복리를 위한 일이 최우선

9개월간 사할린주를 이끈 사람의 삶에 대한 세부 정보

알레리 리마렌코는 공군 비행사 가정에서 출생했다. 부친은 하리코브에서 근무, 부대 안에서 가족이 생활했다. 이곳은 서로가 잘 알고, 신뢰하고, 돕는 곳이었다.

"군부대 내 생활관의 주요 원칙은 상호원조였습니다.

이 원칙을 나는 아직도 고수합니다. '죽더라도 동지를 살려라!' 라는 속담이 있는데 반갑게도 사할린 주민들에게서 이러한 면모를 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숨을 쉬며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리마렌코는 말한다.

그는 하리코브 항공대학을 부친의 권유로 입학했다. 부친은 책임감, 독립심, 주어진 일에 대한 충실함, 새로운 것에 대한 신속한 학습, 자신과 타인을 위해 해결점 수용하는 등 비행사의 원칙을 따라 그를 교육하고 아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

알레리 리마렌코는 대학에서 학업만 아니라 사회활동도

병행했다. 건설과견대와 기숙사 학생회의 총책임을 맡았다. 대학 졸업 전 그는 운명의 첫 놀라운 사건을 맞이했다.

폐쇄 도시 아르자마스-16에서 업무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이때부터 그에게는 원자에너지를 향한 길이 시작되었다.

"확장시절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모든 것은 해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였습니다." 라고 리마렌코는 말한다.

러시아 물리학 실험연구소에서 기술연구원 및 설계자로 근무, 콤포스물위협회의 비서직에 이 우수한 청년을 섭외했다. 이 직책에서 그는 청년 건설단지의 책임을 맡았다.

1990년 국내 첫 선거가 치러지고 자유롭고,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때 리마렌코에게 의회 의원 출마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다. 그는 사로브(전 아르자마스 16호)시 의회 의원 3선을



지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들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데 있었다.

현재 알레리 이고레비치가 사할린주를 대표하게 되었을 때부터 그는 지역들 주민들과 정기적 간담회를 추진하여 4-5시간에 걸쳐 모든 질문에 답을 한다.

사로브시에서 근무한 후, 20년간 그는 여러 일을 해왔

다. 니즈니노브고로드주 정부에서 활동, 수석 연방 감독을 하고, <로스아톰>공사로 이직해 근무했다. 크레믈에서는 유능한 지도자를 일찍이 알아채고 2018년 12월 국가를 위한 전략적 주요 지역을 총괄하는 직책에 대한 제안을 했다.

알레리 리마렌코는 말한다.

"먼 미래가 사할린주를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도로 포장, 주택과 유치원 신축, 도로 노

변 정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해왔다.

그는 '삶은 소소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소소한 문제들이 없다.'고 말한다.

알레리 리마렌코와 함께 지역에 찾아온 변화들은 대단히 많다.

병원과 보건소 개건에 지원금이 2배로 증가,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 프로그램 실시, 1만5천 명의 빈곤층을 돕는 새로운 사회지원 정책도 생겼다. 주내, 지역 간 새로운 항공노선이 개척되고 <아에로플로트>이 유즈노사할린스크-모스크바 노선을 다시 재개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오하 구간 도로는 연방구간 도로가 되고, 군사도시와 국방부 구역 토지들이 변경되기 시작했다.

지역 가스화에 따른 중대한 계획과 함께 러시아 대형 회사의 하나인 <가스프롬> 사할린 지부가 개설되고 그 일련의 사업으로 사회 주요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리마렌코는 말한다. "우리 앞에 더 크고 중대한 기획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Агитационные материалы кандидата Лимаренко Валерия Игоревича опубликованы на безвозмездной основе.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Наградой за покупку лотерейного билета стал суперприз — 5 027 910 рублей. Сахалинец рассказал, что испытывает удачу уже год. Билеты он чаще всего покупает в Интернете. Алексею Подоляню импонирует возможность автоматического выбора чисел.

— Не нужно ломать голову и придумывать комбинацию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этим методом, я купил счастливый билет,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счастливый победитель.

Островитянин часто балует подарками супругу и ребенка. Часть выигрыша мужчина потратит на исполнение мечты своей семьи: сахалинцы отправятся на отдых за рубеж. Кроме того, Алексей думает о покупке нового автомобиля

«사할린의 날개» 익스트림 오토바이 스포츠 경기 개최

<노플레이스투런(No place to run 못 달릴 곳 없다)> 익스트림 엔듀로급의 오토바이 경주대회가

<사할린의 날개> 항공 및 음악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8월 30일-31일 코르사코프 푸쉬스트 소형 비행장에서 진행된다. 올해 경주대회는 러시아 선수권대회이다. 경기 첫 단계는 칼가루에서 열렸고 사할린에서의 경주는 2번째 단계로 진행되는데 경기 결과에 따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세 번째 단계에서 우수 선수와 팀을 선정한다. 이틀간 오프로드 200km 장거리 코스 경주와 행사장 참가에 약 70명의 스포츠인들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할린의 대표 선수들, 모스크바, 연해주, 캄차트카, 크라스노다르 변경, 한국의 선수들이다. 경기 참가 신청은 8월 22일에 마감한다. 경기의 참가자들은 훈련 급수나 스포츠적 타이틀 유무에 따라서 '아마추어급', '전문가급', '선수급'으로 나뉜다. 각 참가자들에게 개별적 통행권과 요구사항이 주어진다.

8월 30일 13시30분 <노플레이스투런No place to run>의 개막이 진행되는데 이때 선수들이 첫 훈련 퍼

레이드로 출현한다. 공식 개막은 <사할린의 날개> 축제 본 무대에서 15시에 진행된다.

<노플레이스투런No Place To Run> 오프로드(비도로) 경주는 익스트림 엔듀로 오토바이 경주 부문에서 주내 대규모 오토바이 스포츠 중 하나다. 이 행사는 <사할린 스포츠 기술종목 센터>, <사할린 엔듀로 파크>, <사호 파르크>이 후원하고, 정보 협력은 <사호콤>이 한다고 전해졌다.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откроются экстремальным эндуро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эндуро на мотоцикле в классе extreme enduro No Place to Run ("Некуда отступать", "Некуда бежать") откроют фестиваль авиации и музыки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Он пройдет 30-31 августа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В этом году гонка имеет статус чемпионата Ро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ится второй этап этого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итогам остро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а также гонок в Калуге (первый этап) и Владивостоке (третий)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лучшие гонщики и команды.

Участие в зрелищном прологе и двух внедорожных днях с трассами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в 200 километров, примет около 70 спортсменов: заявились большая сахали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гонщики из Москвы, Приморья,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снодарского краев 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ем заявок участников гонки закроют 22 августа.

Участников гонк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ровня подготовки и наличия спортивных званий разделят на классы "Хобби", "Эксперт" и "Про". У каждого из них будет собственный зачет и набор требований. Старт пролога No Place to Run назначен на 13 часов 30 августа — в это время спортсмены выйдут на первые тренировочные заезды. Официальное открытие состоится в 15 часов на главной сцене фестиваля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No Place to Run — внедорожная гонка в дисциплине extreme enduro (до 2019-го — hard), одно из крупнейших спортивных мотособытий в области. Поддержку мероприятию оказывают сахалинский центр технических видов спорта, Sakhalin Enduro Park и ООО "СахПартс",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артнер события — портал Sakh.com.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총 34편이 선정됐다.

- 성인 부문 대상
· 체험수기 : 박영희(중국), '전설처럼 살다 가신 할머니'

· 단편소설 : 이태경(카자흐스탄), '오해'

· 시 : 심갑섭(미국), '오래된 풍경'

- 청소년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

· 중·고등부 : 홍세훈(뉴질랜드), '2019년이 1919년에'

· 초등부 : 박동하(뉴질랜드), '지구 반대편까지 들리는 평화의 만세소리'

- 한글학교 특별상 :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한글학교, 캐나다 노스욕컴머벨리한글학교

총 42개국에서 작품을 응모한 가운데, 국내 문단에서 존경받는 문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올해 수상작품집은 책·전자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 시 부문 : 신경림 시인, 신달자 시인, 유자효 시인, 정호승 시인

- 단편소설 부문 : 오정희 소설가, 우한용 소설가, 구효서 소설가

- 체험수기 부문 : 이경자 소설가,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 유현경 연세대 교수

- 청소년 글짓기 부문 : 박상우 소설가, 권지에 소설가
체험수기 심사위원 이경자 소설가는 "개인적으로 재외동포문학상 심사를 하며, 재외동포이신 친정식구들의 삶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며 "당선된 작품들이 널리 읽혀, 재외동포를 바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부문을 심사한 신경림 시인은 "올해 작품 수준이 향상되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페루, 그리스 등 우리 동포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십여 년을 살며 꾸준히 한글로 작품을 써내려가는 점이 대단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올해 경쟁이 치열했던 시 부문은 심사위원단의 요청으로 가작을 추가 선정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999년부터 '재외동포문학상'을 매년 개최,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을 장려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사할린 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 뿐인 달력 2020" 제작 모금 시작

KIN(지구촌동포연대)(이하 KIN)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0>을 제작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을 8월 14일(수)부터 시작하였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 동포들이 기일, 생일, 농사일, 손없는 날 등 일상생활을 음력으로 지내지만, 러시아에서 음력 달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작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일곱 번째 제작이다. 러시아 달력에 음력과 절기, 한국의 명절 및 국경일을 표기하고, 짧은 러시아어 설명을 넣어 3, 4세 동포들도 전통문화를 알 수 있도록만든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한국의 시민들에게 사할린 동포들을 알리고 공감하기 위한 취지로 온라인 모금을 통해 제작해 왔다. 올해도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온라인 모금이 진행

되며, 특히 올해 달력사진은 "남북사진문화교류추진위원회"(위원장 엄상빈) 소속 사진가들의 작품으로 꾸며지게 된다.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은 사할린과 한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포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새해 선물이 되고 있다. 또한 달력배송을 하며 만난 동포들의 구술기록 등은 시민의 힘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활동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온라인 모금 참여
1) 같이가치 with kakao(10월 14일까지)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68598>
2) KIN 모금 계좌(같이가치 모금 종료후)
↳ 우리은행. 1006-301-227783. KIN(지구촌동포연대) 계좌입금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kin2333@gmail.com.

<빛의 놀이>제 1회 사할린 미래의 영화제 비경쟁프로그램 한국 영화 '꼭두 이야기'와 '미스터 아이돌' 초청 (3면의 계속)

오구주 프로듀서는 말한다 '하늘의 별을 보지 말고, 별이 되어라!' 미스터 아이돌은 스타가 되는 과정에 역경을 겪고 다시 해체되지만 이들은 음악으로 각자의 상처를 감싸고 다시 꿈을 쫓는다. 이들은 말한다. '내가 즐겁고 여러분이 즐겁다면 그게 음악이다.'라고.

상영 후 어린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마이크를 돌려가며 던지는 질문에 라희찬 감독은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다. 라 감독은 8년 전 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영화를 제작했고, 케이팝의 영향으로 8년 전 작품인 <미스터 아이돌>이 러시아 사할린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질문 중에는 '아이돌들 세계에서 영화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영화제작은 얼마 동안 했는지?', '영화의 주요 주제는 뭔지?', '노래역을 맡을 배우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등 다양한 호기심으로 질문을 했다. 그중 '지금 아이돌 영화를 제작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제작할 것'인지 학생이 묻자 라 감독은 단호히 "아니다."라고 답했다.

라 감독은 코메디 영화 <바르게 살자>(2007 개봉)라는 영화로 온 국민의 배꼽을 잡게 했다는 기사도 있는 만큼 <미스터 아이돌>의 작품에서도 대사, 스토리 전개, 음악, 긴장감, 유우머, 절정의 기쁨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114분은 빠르게 지났고 학생들은 연신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박혜신)

사할린동포와 함께 제13회 '대구의 밤 개최'

대구의 청년들이 지난 14년 동안 사할린을 방문해서 동포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겹고 신명나는 울림이 있는 대구의 밤 행사를 준비합니다. 꼭 오셔서 대구 사람들과 정을 나눠주세요.

일시: 2019년 8월 24일 오후 5시

장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강당

주최: 사할린주한인협회, 민족통일

대구시청년협의회, 사할린주여성회

주관: 매일신문CEO스피치아카데미

후원: 대구광역시, 금부모터스, 여성메디파크병원, 새고려신문사, 사할린인문기술대학.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выражает глубокие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члену правления ЮСМООК Хе Ген Дя в связи со смертью брата Ли Чен Гиль(리첸길, 1943년생, проживавшего в г.Кимпхо (РК).

EDA.SAKH.COM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